

## 외양간과 소죽통



이인형  
전 축산시험장장

나는 한국사료협회 권영길 차장께서 나의 자서전 황소 발자국이 축산신문에 연재되는 것을 보고, 한국사료협회에서 격월로 발간하는 잡지에 게재할 원고를 부탁하는 전화를, 어느 날 갑자기 받았다. 그러나 내가 배합사료에 관한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는 농림부 초지사료과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밖에 되지 않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양을 하였다. 그런데 권 차장께서 정중하고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어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글을 쓰기로 하였다. 그래서 내가 전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가 성장하면서 어깨너머로 터득한 내용과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정리를 해 보고자 하니 부족한 점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양간은 옛날에 소를 기르기 위하여 대부분 사람의 생활공간과 가장 가까운 앞마당이나 행랑

채에 붙여서 지은 소집,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한우사(韓牛舍)이기도 하다. 그 소집에는 반듯이 통나무를 파서 만든 소죽을 줄 수 있는 소 밥통이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외양간의 소죽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농촌의 전통적인 가축사육의 기본은 한우를 사육하면서 겨울이나 일을 많이 하는 농사철에는 소의 밥인 여물을 쭈어 주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여물은 가마솥에 벧짚을 잘게 썰어서 넣고, 모아두었던 뜸 물을 쏟아 붓고, 콩까지를 넣은 후 솥뚜껑에서 푹 푹하며 솥뚜껑이 들석 들석하며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올 때까지 불을 때고 그때에 솥뚜껑을 열고 쌀겨와 콩 등을 넣어 다시 끓이면 소죽이 된다.

바로 이 소죽이 우리가 현재 배합사료공장과 TMR 사료공장에서 여러 가지의 원료를 분쇄하여 넣고 배합하여 축산농가에서 소, 돼지 그리고 닭 등에 급여하는 배합사료의 원조(元祖)라고

생각한다. 물론 소죽을 끓여 먹이고 하던 옛날, 아니 현재 농촌에서도 한두 마리 소를 기르는 농가에서는 소죽을 끓여 먹이지만, 돼지는 옛날에는 뜸물 양돈, 닭은 낙곡양계(落穀養鷄)를 하였던 시대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무역자유화협상(FTA)이 진행되면서 쇠고기의 협상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농촌살림의 중요한 시설인 헛간·창고와 같이 중요한 외양간에서 사육을 한 주요한 농가의 재산1호 이기에 농촌경제에 또는 나라경제에 중심에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다. 그런가하면 우리생활에 신조로 삼아야 할 소와 관련된 격언(格言)이 많다.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면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지만, 안고치거나 대충고치면 실수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또는 저지른 죄나 자기가 행한 일은 반듯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을 뜻하는 “여물 많이 먹은 소, 똥 늘 때 알아본다.” 즉 앞에 격언은 매사에 사전준비를 하여야 인생사가 편안하고 성공하다는 뜻이며, 뒤의 격언은 하여서는 안 될, 못된 일은 하지 말 것이며, 인간사(人間事)에 비밀은 없다는 것을 생활의 신조(信條)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이번 무역자유화협상에서 위에 예를 든 두 격언에 충실하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격언 풀이를 하여 본 것이다.

그런가 하면 소는 만물의 근원으로 자연을 숭배하는 도가(道家)에서는 속세를 떠나 아무 것에도 속박되지 않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유유자적

(悠悠自適),” 공자의 학풍을 신봉하는 유가(儒家)에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하고 정당한 도리를 뜻하는 “의(義)”를 상징하지만, 불교를 믿는 불가(佛家)에서는 “인간의 본래 자리”를 의미한다.

그만큼 외양간에서 숙식(宿食)을 하는 소는 다른 어떠한 동물보다도 우리에게는 친숙한 가축으로서 우리생활 한구석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소죽통은 여물을 넣어주는 그릇으로 현대 사회의 가축의 먹거리인 배합사료의 원조인 여물을 생각하여 잡다한 이야기로 정리를 하였다.

그리고 불교의 선법(禪法)에 통달한 법사인 선사(禪師: 도가 높은 승려)들도 이러한 소를 수행(修行)의 채찍으로 삼아 왔으며, 또한 절에 가면 법당 벽화로 소를 비유한 상징들의 그림인 동자(童子)와 소를 등장시켜 참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과정을 묘사한 그림인 십우도(尋牛圖)를 볼 수 있다. 이 때에 소는 인간의 진면목인 불성(佛性)을 의미하며 수행단계를 10단계로 나누어 표현하기 때문에 십우도(十牛圖)라고도 한다.

끝으로 황소는 큰 수소를 뜻하나 외양간에서나 푸른 들판에서 풀을 뜯고 나면 누워서 색임질을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줄도 알고 있다. 한편 평화로운 때는 뚜벅 뚜벅 느리게, 무게 있게 걷는 모습을 황소걸음이라고 한다. 그러나 황소가 어려운 위기상황을 만났을 때는 그 순발력과 저돌적인 공격으로 호랑이도 한우를 피한다는 옛날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오늘의 어려운 여건에서 지도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축산산업의 바른 길을 터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